

『창세기 11회: 창세기 12:1-3』

1.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12:1-3)

세계적인 성경학자 N. T. 라이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구조 안에서 모든 인류의 곤경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다. 아담에서 시작해 가인을 거쳐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거치는 재앙과 저주의 흐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반전되기 시작한다.”¹⁾

아담은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롬 4:16-17).²⁾ 이 표현은 바울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창세기 12-25장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새 창조’ 사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바로잡으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혼란과 저주가 낳은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³⁾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혼란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충성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과 주위 환경은 혼란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삶에 반전을 줄 수 없고, 역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긋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반전과 역전을 만들어 냅니다. 삶이 혼란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9절은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⁴⁾

- 1)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Minneapolis: Fortress, 1992), 262,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크리스찬다이제스트 역간).
- 2)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나니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6-17)
- 3)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Wheaton: Crossway, 2012), 김귀탁 역, 『언약과 하나님 나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325-326
- 4)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 333.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약속

가라(명령)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약속)
2. 내가 네게 복을 내릴 것이다(약속)
3.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약속)

복이 되어야 한다(명령)

1.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릴 것이다(약속)
2.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약속)
3.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약속)

아브람의 반응: 순종

아브람의 순종(4-6절)

하나님의 보증(7절)

아브람의 순종(8-9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람은 ‘가야’하고, ‘복이 되어야’합니다.⁵⁾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아브람에게는 6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 3가지 약속은 아브람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다음 3가지 약속은 아브람을 통해 세상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⁶⁾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약속들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사래를 불임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람은 사래를 통해서는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한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하란을 떠난다면,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번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둘째 약속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사람의 불임

5) Paul R. Williamson, *Sealed with an Oath: Covenant in God's Unfolding Purpose*, NSBT 23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7), 78-79.

6)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 339.

을 고려할 때 큰 민족이 되는 약속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7))

현대인들도 변창함에는 ‘행운’, ‘우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운’이 아니라 ‘축복’,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 은혜를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층위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고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영적인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보이는 물질의 복이든, 보이지 않는 인격과 관계에 관한 복이든 ‘영적인 복’입니다.9)

둘째,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내고자’하십니다.10) 이 때,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왕 같은 인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11)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시기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가나안의 왕과는 다릅니다. 가나안의 왕은 자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힘’으로 왕권을 세우고 유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왕권을 세우고 유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위해 권력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권한이나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직장과 교회, 가정에서 우리는 권한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로 해당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무실한 왕으로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가라’는 명령을 지킬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는 일은 결코 쉬

7)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19.

8)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박영호 역, 『창세기 1-15』(서울: 솔로몬, 2006), 488-489.

9) Herman Nicolaas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English Trans(USA: Wm. B. Eerdmans), 박문재 역, 『바울신학』(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7), 997.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20.

11)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 342.

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 칠십오 세”라는 말은 아브람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하란을 떠났음을 암시합니다(참조 11:26, 32).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말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족을 향한 의무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¹²⁾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기를 원하셨고, 이전의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길 요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성하고 어설프고, 마음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채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을 것과 삶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게 최대한 멀어져야 하고,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지도, 벌을 내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에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기에 복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람을 통해 세상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살펴봅시다. 아브람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어야 한다는 명령은 아브람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람은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의 삶과 말로 이방인들에게 공유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전달하는 것은 아브람의 책임입니다.¹³⁾

우리도 삶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의미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실 것이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한글성경은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보다 뉘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 493.

13)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389.

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복주는 사람들을(복수) 복줄 것이지만, 너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단수) 내가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브람은 자신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만날 것입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수형태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단수형태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많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적길 바라십니다.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강조합니다.¹⁴⁾

히브리어에서 ‘저주’에 해당하는 두 낱말은 ‘아라’와 ‘칼랄’입니다. ‘아라’는 ‘칼랄’보다 강한 의미입니다. ‘아라’는 ‘축복의 자리와 능력으로부터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칼랄’은 ‘깎보다’, ‘함부로 말하다’, 혹은 ‘저주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믿음을 업신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축복의 자리에서 제거하십니다.¹⁵⁾ 앞서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강조했듯이, 이 미묘한 단어의 차이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업신여기며, 누군가는 우리를 존중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저주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심으로써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업신여김과 저주당함이 싫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까먹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면(‘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에 불순종), 우리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브루스 월키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복을 주다’라는 용어는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 의식이 동반된 다산과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기록합니다.¹⁶⁾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은 사람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14) Peter J. Gentry, Stephen J. Wellum, 『언약과 하나님 나라』, 344.

15)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389-390.

16) Waltke, *Old Testament Theology*, 316.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특히 미래 세대를 잘 보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혹은 받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기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의무와 섬김의 요구들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이기적으로 물질, 시간,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 12:1-3에서 ‘복’은 5회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복의 반의어인 저주는 창세기 1-11장에서 5회에 걸쳐 나타납니다. 창세기 3:14에서 저주는 자유와 능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패배와 비천함을 가져왔고, 3:17에서 저주는 인간과 땅의 단절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4:11에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그 결과 유랑자가 되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를 겪었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더 깊은 몰락과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즉, 저주는 점증적인 박탈 및 증대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저주는 인간을 에덴에서 바벨로 몰아갑니다.¹⁷⁾

창세기 12:1-3에서 “복”이 5회 반복되는 이유는 아브람의 부르심이 이 저주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깨진 관계는 잠재적으로 회복되었고,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한 관계를 결국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세기 1-11장의 저주를 꺾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폴 하우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고, 복을 주시기로 한 결정을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여기서 선택은 어떤 사람도 배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세상에 오로지 유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복을 주신 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17) H.W. Wolff, “The Kerygma of the Yahwist”, *Interpretation* 20 (1966): 131-158

18) Paul R. House, *Old Testament Theology*(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8), 73